

춤추다 말고 월드스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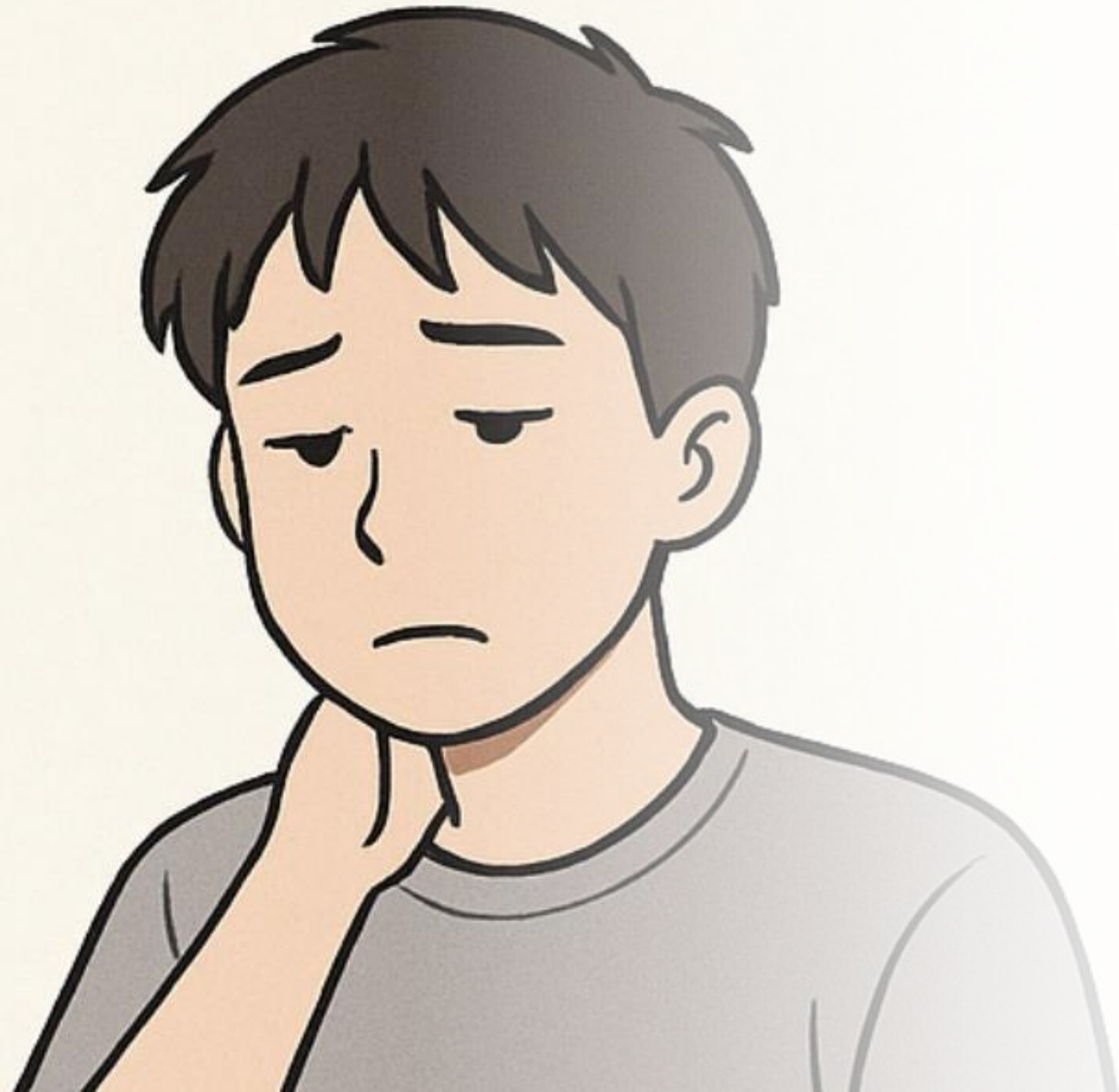
준서(가명)는 원래 아이돌 생각도 없었다.

그냥 춤추는 걸 좋아해서 학교 축제에서 춤을 췄는데 그 영상을 본 친구가 "오디션 한 번 넣어보자" 해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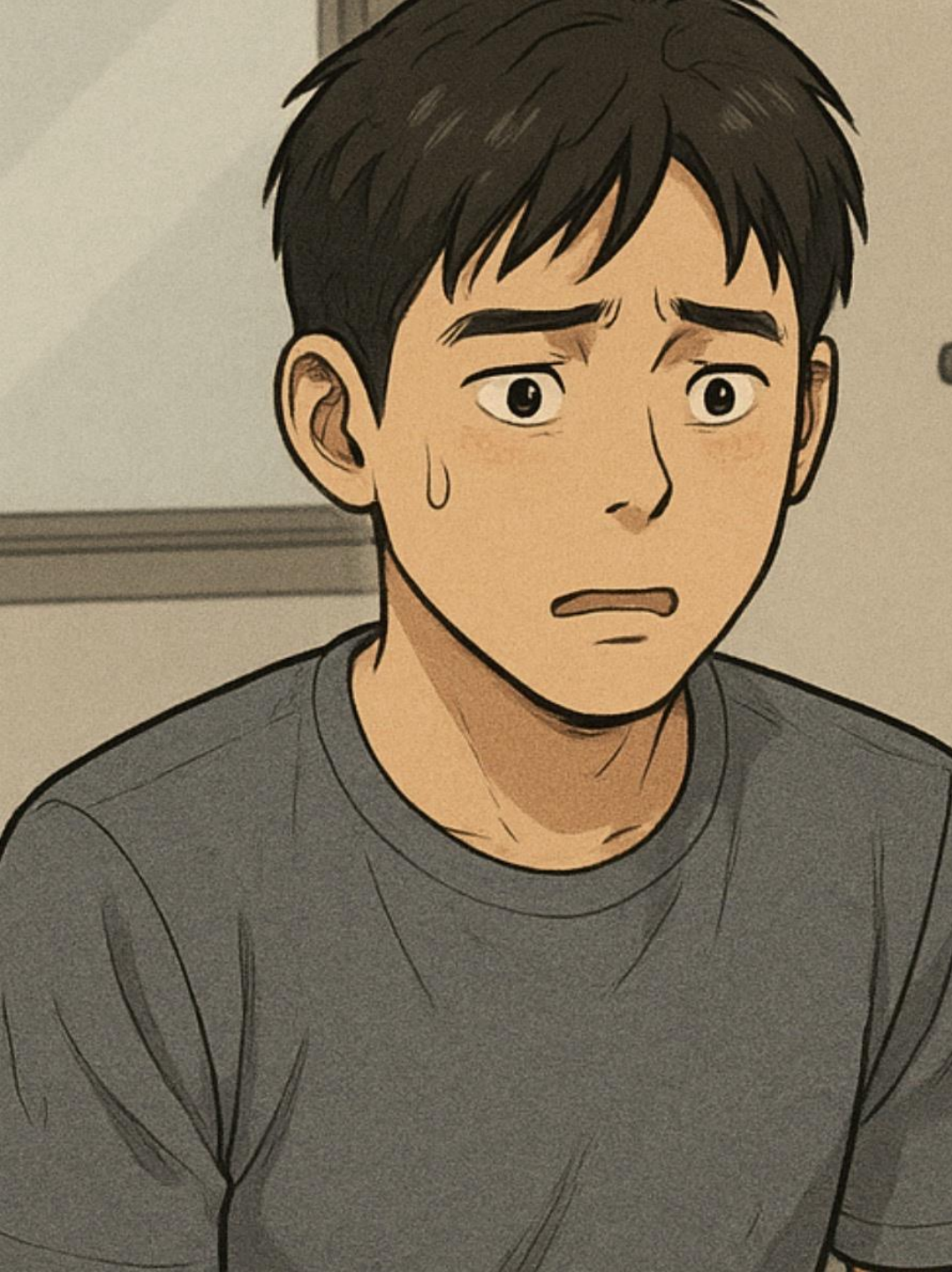
진짜 별 기대 없이 지원했다.

근데 막상 오디션을 보러 가자 떨려서 실수도 했는데 심사위원이 "기본은 있네" 하고 합격을 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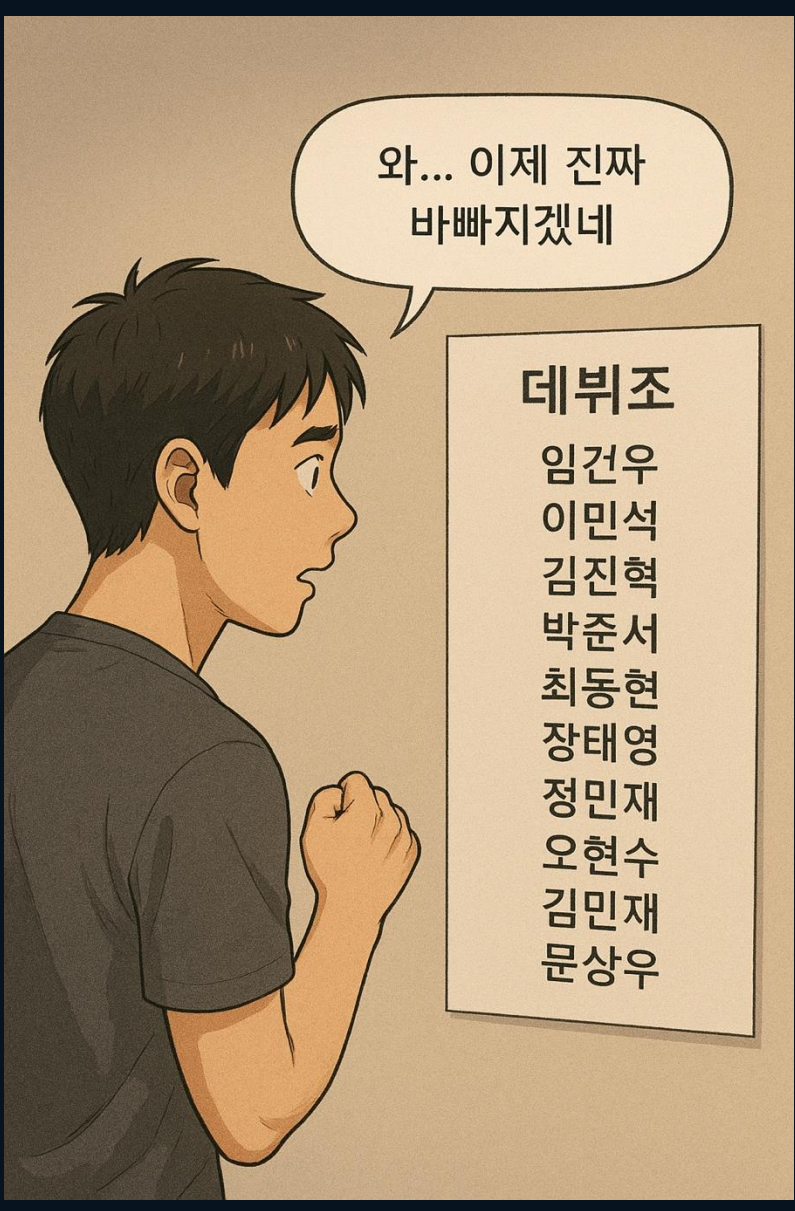
준서는 어리둥절한 채 연습생이 됐다.



-
- 첫날부터 현실 체크가 왔다. 안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, 보컬은 발성만 해도 목이 아플 정도였다. 화려함은 없고 그냥 "학교 + 연습 + 집" 반복. 준서는 '아이돌은 빛나는 직업'이라는 환상에서 하루 만에 벗어났다.



-
- 가장 긴장되는 건 한 달에 한 번 있는 평가였다. 준서는 매번 손이 떨리고 목이 갈라졌지만 큰 실수 없이 마무리했다. 트레이너는 “네 장점은 꾸준함이야. 흔들리지 않아”라고 말했다. 화려한 칭찬은 아니었지만 준서는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라 좋았다.



와... 이제 진짜
바빠지겠네

데뷔조

임건우
이민석
김진혁
박준서
최동현
장태영
정민재
오현수
김민재
문상우

- 데뷔조 발표 날, 준서는 기대도 안 했다.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으니까. 근데 명단 마지막 줄에 자기 이름이 있었다. 순간 기쁘기보다 '와... 이제 진짜 바빠지겠네'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다.

- 준비는 더 힘들었다. 안무 수정, 녹음 재촬영, 연습 반복. 준서는 피곤해서 이동 중에 잠들기도 했다. 그리고 드디어 무대 날. 떨렸지만, 연습했던 만큼만 정확하게 해냈다. 그리고 데뷔했다

